〈송년사〉

送舊迎新

〈김벽수 사우회 회장〉

이제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할 때입니다. 사우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흔히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올해 창립 17주년을 보낸 SBS 사우회의 지난 1년도 매우 빠르게 지나간 듯 합니다. 우리 사우회는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양적으로는 총 회원수가 820명을 넘어섰고, 내용면에서는 각종 사우회 행사와 동호회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봄, 가을 야유회를 비롯한 각종 사우회 행사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회원을 연 인원으로 계산해 보니 2,000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소위 100세 시대에 60, 70 나이는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님들 중에는 팔순을 넘긴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모두 건강하십니다. 사우회 활동 참여가 건강권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우회 존립 목적은 회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친목 도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종 사우회 활동에 함께하면 언제나 반갑고 그리운 선후배, 동료들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회 발전은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제 2023 癸卯年과 해어질 시간입니다. 2024년 甲辰年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힘차게 승천하는 청룡의 기상처럼 여러분 모두 더욱 강건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충만한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사소식〉

윤세영 명예회장 5년만에 경영 일선 복귀

윤세영 SBS 사우회 명예회장 겸 SBS 미디어그룹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태영그룹은 건설업계 전체가 PF 우발채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윤 회장이 경영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년여 만에 복귀하는 윤 회장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회사인 TY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돼 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SBS 신임 사장에 방문신 부사장 선임

방문신 부사장이 12월 1일 SBS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 박정호 SBS 사장은 퇴임 후 SBS 대주주인 TY 홀딩스 미디어부문 사장에 선임됐다. 방 신임 사장은 대외협력실 업무와 뉴스 보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승진했다.

〈알림〉 사우회 신년교례회 개최

- 일시 : 2024년 1월 4일(목) 11:00
- 장소 : 등촌동 사우회 사무실

참석한 회원들께는 SBS가 제작한 신년 다이어리를 배포해 드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올해의 사우상 수상 소감 〉

"함께 한 선배 동료 여러분 덕입니다"

〈배성례 미래위원회 위원장겸 골프동호회 회장〉

아무래도 제겐 너무 과분한 상입니다. 올해의 사우상 선정 과정에서 저의 미래위원회 활동과 골프회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다고 하지만 저 혼자 상을 받기에는 쑥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회원들이 사우회에 안착해 선배들과 함께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미드 필더, 윙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셔서 선배님들의 후배사랑을 확인하시고 즐거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놓고 보니 SBS 직장생활은 제 인생의 가장 즐겁고 보람된 시기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기쁘심을 얻고 소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미안한 마음으로 3년 전부터 SBS 사우회의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연말 송년회에서 큰 상을 받았으니 이제 그 빚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편여한 골프회는 물론 사우회에서 마련한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사우회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호회 소식〉

골프동호회 (회장 배성례, 총무 김찬모, 문계창)는 11월 15일 더 크로스비 골프클럽에서 23년도 납회를 갖고 회원들이 심시일반 기준한 푸짐한 상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8팀 30명이 참가한 납회에서 김벽수 사우회장은 동호회의 활성화로 참가 사우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우회의 존재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납회 주요 부문 수상자들 외에도 참가사우 전원이 상품을 받았다. 골프동호회는 내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세번째 수요일 오전에 더 크로스비 골프클럽에서 월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납회 각부분 수상자

BB상 리스트 우승 (최정희), 준우승 (김복대), 3위 (김혜자) / NP상 리스트 준우승 (정경희), 3위 (김혜자) / 니어상 리스트 (이준범) 1.20미터 / 장타상 우승 (이충기) 271.0

참가 사우

박 홍, 김근수, 김벽수, 최경수, 김재백, 박동주, 임근혜, 정영희, 김덕규, 김두상, 박종덕, 이충기, 김찬모, 문계창, 이무열, 정준영, 김인기, 유인상, 이강호, 이태원, 김상일, 이은범, 정 효, 최영하, 강태식, 임종국, 이재경, 이용석, 김인주, 배성례, 이재원, 이충철

당구동호회 (회장 김영식, 총무 윤영준)

교대 모임

11월 20일 / 교대당구장

참가 사우

김영식, 김기성, 김인주, 박영호, 송연갑, 윤영준, 이근용, 이기석, 장고, 조종성, 최춘식

서북 모임

11월 10일, 12월 8일 / 대화역 스타당구장

참가 사우

박영호, 홍상국, 송연갑, 류상우, 김인주, 임종국, 이병태, 이강호

바둑동호회 (회장 정영철)는 11월 13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23년도 사우회장배 바둑대회를 열었다. 회원 11명은 갑, 을 2개조로 진행된 대회에서 수담을 나누며 한 해를 마감했다. 갑조 반상대결에서는 우승 김수응 사우, 준우승 강동하 사우가 각각 차지했으며 을조에서는 김재백 사우 우승, 김홍덕 사우 준우승을 해 상품을 받았다.

참가사우

강동하, 이한철, 주일원, 김벽수, 김수응, 박오종, 이브천, 김인주, 김홍덕, 김재백, 정영철

"사우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우회 집행부 올림 –

음악감상동호회 (회장 강동하) 10월 20일 오후 3시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우리의 하루'를 감상했다.

11월 17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연말 송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노래들을 감상하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사우

강동하, 김인주, 김복수, 김춘권, 김상일, 민대식, 박건삼부부, 박종부부, 성정수, 변장부, 서영철, 손종덕, 이명규, 송연갑, 이근용, 이한철, 이승준, 이봉녕, 이상목, 이형원, 오창근, 조종성, 지병목, 정기현, 최우성, 최춘식, 현일범

12월 사우회보는 송년특집으로 6면 발행 됐습니다.

가을야유회 가길 참 잘했다

〈김덕규 사우〉

침대에서 내려 서는데 발뒤꿈치가 아프다. 며칠 전부터 통증이 잠깐씩 있었는데 오늘은 심하다. 걷는 게 불편하다. 오늘은 사우회 가을 야유회 날인데 김인주 사무총장님이 신신당부하셨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집결지에서 선배님들께 인사 드리고 열외 해 있다가 점심 장소에 먼저 가 있자고 생각하며 파스도 발을 감싸고 나가는데 오후에 비가 잠깐 온다고 마누라님이 우산 챙기란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서울대공원역 2번 출구 에는 벌써 여러분들이 와 계셨다.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다들 여전하시다. 손석기 회장님은 손주를 돌보시느라 바쁘신데 겨우 짬을 내 셨고, 박영만 선배님은 마츠야마 잘 다녀오셨다고 인사 주신다. 김경환 선배님은 나고야 여행 다녀오시고 체중이 많이 느셨단다. 차성모 선배 님은 멋진 썬그라스 때문에 못 알아 뵐 뻔했다. 10시 30분 집합 시간이 되니 여러분이 모이셨다. 50여 분 되는 것 같았다. 기념사진을 찍는데 얼굴이 잘나오지 않을까 싶어 발을 추켜 세웠다. 12시 30분까지 동물원 옆길을 따라 트레킹을 하는데 현일범 선배님이 슚길 팀을 이끌고 가시고 나는 강동하 선배님의 산책로 팀을 골찌로 따라갔다. 천천히 걸었더니 통증이 심하지 않았다. 서울근교에 이렇게 좋은 산책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지 느끼며 김복수 회장님과 배성례 선배님 뒤를 따라 걸었다. 두 분은 골프동호회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른 사우회 회원 분들 근황을 묻고 하셨다. 그러다 회장님이 SBS 3재 구러를 물으셨는데 운구라, 이구만, 박구라 답했는데 박구라는 좀 약하다 하신다. 그럼 배잘란인기? 하여간 크게 웃었다. 비가 온다더니 하늘은 화창하고 단풍이 시작되어 가을 정취가 가득하다. 야유회 날짜 잘 잡으셨다. 오찬 장소는 경마공원 옆 회로구이집이라는데 좀 많이 화끈한 거 아닌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버스를 대절하지 않아 경비를 많이 절감하고 대신 오찬 예산을 더 배정했다고 한다. 절하셨습니다. 배는 고프고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다. 소화불량이든 뭐든 입으로 들어간다. 옆에 앉으신 박영호선배님의 무용담이 또 장편으로 펼쳐진다. 아무래도 박구라가 맞는 것 같은데…. 권오형 선배님은 기분이 좋으신지 술 딱 한잔이 석 잔이 되었다.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좋다. 장근선 후배님도 반가웠다. 현직에 있을 때 도움 많이 주어 고마웠는데 지난 8월 퇴직 했단다. 사우회 활동에 많이 참여해서 자주 보면 좋겠다. 과식한 것 같다. 17,000보를 걸었는데도 배가 무척 무겁다. 발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우회 야유회 가길 참 잘했다.

요산요수회 (회장 성준호, 총무 이명규)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구파발역에서 모여 영봉산길 트레킹을 끝으로 올해 한해 활동을 마감했다.

참가사우

현일범, 김상일, 정기현, 이상목, 이명규, 강동하, 이종성, 조종성, 최춘식, 김인주

테니스 동호회 (회장 한홍규, 총무 임창은)

11월 29일 고척동 계남테니스코트

참석 사우

한홍규, 이충용, 조수현, 임창은, 이강호